

충남간호사회 '돌봄의 공간-병원건축' 초청강연

충남간호사회(회장 임미립)는 '돌봄의 공간-건축과 의학의 만남' 주제 초청강연을 6월 28일 개최했다. 회원 84명이 참석했다.

양내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건축학부 교수가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까지 집합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병원건축의 변화상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내 병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간호사회가 충청남도로부터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여성건강증진사업이 함께 마련됐다. 안영미 백석대 간호학과 교수가



'이야기의 힘!' 주제로 직장여성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강의했으며, 간호사 및 일반인 93명이 참여했다.

임미립 회장은 "강연을 통해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고, 삶의 만족스러운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경기도간호사회 간호관리자 연수

경기도간호사회(회장 김인자)는 간호관리자 연수를 6월 22~23일 남양주 동화컬처빌리지에서 실시했다. 간호사회 임원진과 간호부서장, 간호대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호정책 주제로 특강을 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태움을 넘어 존중으로" 특강을 문장분 노무법인 행복한 일 대표가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병원의 근무환경 개선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김인자 회장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사들이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각 병원들의 성공사례들을 토대로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자"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서정대 간호대학생 '빅데이터' 교육 참여

서정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빅데이터 교육 과정에 참여해 미래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정대 (총장 김홍용) 대학일자리본부는 '2018 여대생 빅데이터 분석가 과정'을 6월 25~27일 개최했다. 서정대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에 2017년 선정돼 대학일자리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을 진행한 황윤찬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환자외의 최접점에 있는 간호사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면서 "앞으로 간호사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빅데이터 분석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경희 간호학부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임상 및 산업 현장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번 교육과정이 환자 중심 의료에서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가 과정은 여대생 커리어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비정형데이터와 정형데이터의 수집, 데이터 전처리 및 시각화, 텍스트 분석과 챗봇(채팅로봇)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시뮬레이션학회 학술대회 개최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회장 김정희)는 '성과 기반 간호시뮬레이션 교육과 운영의 질 향상' 주제 학술대회를 6월 23일 개최했다.



'학습성과와 시뮬레이션 교육' '시뮬레이션 교육운영: 임상실습과 연계' '효율적인 디브리핑 운영 방안' '시뮬레이션 교육자의 역할' '시뮬레이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설계'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주연 이대목동병원 간호사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과정을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김정희 회장은 "현장 중심, 실무 중심의 간호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에 통합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간호교육자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간호시뮬레이션학회는 최근 홈페이지(www.kssn.or.kr)를 개편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산업간호사회, 산업간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산업간호사회(회장 정혜선)는 제51회 산업안전보건주간을 맞아 '2018년 산업간호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7월 5일 개최했다.



산업간호사들이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10편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상= 뇌심혈관 질환 관리에 기여한 건강증진프로그램 '100일의 기적'(김승미 CJ제일제당 인천2공장 보건관리자) 반도체 보건관리, '어제보다 한걸음 더, +' (김종미 엘이엘씨코리아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상 △최우수상= 움직이는 에너지 충전 사업장(하예슬 삼성 SDI 주식회사 울산사업장 보건관리자) △우수상= 근로자를 위한 Health Habits Design :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오정화 풍산 울산사

업장 보건관리자) 자가관리 향상을 위한 통합보건관리(이성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 보건관리자)

◇대한간호협회회장상= 위라벨의 시작 DY건강문화 정착하기(정명희 덕양산업 보건관리자)

◇산업간호사회회장상= 저독성물질 대체 및 소음개선(김수련 스텝코 보건관리자) 몸과 마음을 짝짝 짝, 일과 생활을 짝짝 짝(한미숙 제주대병원 보건관리자) 건강한 회사를 위한 3Go(정은진 테크윙 보건관리자) 직무스트레스 예방활동을 통한 직원만족도 향상(이성일 삼육서울병원 보건관리자).

주혜진 기자 hjoo@

인사 전북대병원 박수정 간호부장

전북대병원 간호부장에 박수정 간호행정과장이 승진 임명됐다. 7월 1일자.

박수정 간호부장은 1981년 전북대 간호대학을 졸업했으며, 동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 졸업 전북대병원에서 몸담으며 병동행정과장, 간호행정과장 등을 지냈다. 전북간호사회 이사, 전북병원간호사회 이사를 지냈다.

박수정 간호부장은 "미래를 선



도하는 고객 중심의 전문간호 실현이라는 사명을 중심으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우수한 간호인력을 육성하고, 의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세계마취간호사회 정계선 이사 선출

세계마취간호사회 이사로 정계선 전 마취간호사회장이 선출됐다.

정계선 이사는 한국 대표로는 처음으로 2014년 세계마취간호사회 이사로 선출됐으며, 이번까지 세 차례 당선됐다. 세계마취간호사회(IFN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Nurse Anesthetist)는 대표자회의를 6월 16~1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고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으로 재키 로울즈(Jackie Rowels, 미국) 현 회장이 세 차례 당선됐으며, 정계선 이사를 비롯해 6명의 이사가 선출됐다. 임기 2년. 대표자회의에 이어 제13회 세



세계마취간호사회 정계선 이사(왼쪽에서 둘째)가 재키 로울즈 회장(오른쪽에서 둘째) 등과 함께 자리했다.

계마취간호사 학술회의(WCNA)가 6월 18~20일 열렸다.

학술회에서 정계선 이사는 '한국 마취간호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세계마취간호사회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정계선 이사와 공미정 남부미시시피대 마취전문간호사과정 조교수(마취전문간호사)가 함께 진행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파독간호사 강정희, 시조시인 등단

"타향살이 딛고 일어난 나는 붉은 태양"

"50년 타향살이 여기는 독일이다/저기 저 타는 노을 고향에서 보일까/어둠을 딛고 일어난 나는 붉은 태양이다"("독일의 석양")



강정희 파독간호사가 (시조생활) 제113호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시조시인으로 등단했다. 등단 대표작은 '독일의 석양'이다.

지난 5월 30일 열린 시상식에 참석차 귀국한 강정희 간호사는 "문학의 여러 장르를 공부하며 글을 써왔는데, 시조에 가장 애착이 많이 간다"면서 "앞으로 시조에 중점을 두고 글을 써서 한국의 전통시를 독일에 전파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강정희 간호사는 시조시인 등단과 함께 단편소설 '라인강의 눈물'로 제4회 황금찬 문학상 소설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에 앞서 문학광장을 통해 수필, 시, 소설 부문에서 등단한 바 있다. 문학광장 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외동포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수필집 '네 엄마는 파독간호사', 시집 '하얀 날개'를 펴냈다. 이 작품들에는 강정희 간호사 개인의 삶과 추억을 뛰어 넘어 파독간호사들의 인생과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담겨 있어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다.

강정희 간호사는 순천정암대를 졸업했다. 1969년 독일로 건너가 수술실 간호사로 일했고, 병원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책임자로 활동했다. 2010년 정년퇴직했다. 디아코니아 훈장을 받았다. 현재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란엔펠트에 살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병과 부상 등으로 발생한 고액 의료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국민이 없도록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 부담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난적 의료비는 1회 입원비나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근 1년 이내의 외래진료비 등이 가계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된 금액을 초과한 비용을 말한다.

대상 질환은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질환별 입원·외래진료 입수는 연간 180일 내에서 인정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등이다.

주혜진 기자 hjoo@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오는 12월 전면교체

새 담뱃갑 경고그림이 오는 12월 23일부터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

결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경고그림이 붙게 된다. 결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벤조피렌, 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과 결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께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제조사로부터 담배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인 규제 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기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